

학문으로서의 한의학의 정의와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논의

김명현¹ · 김병수¹ *

A Study of Defini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s Learning and Discussion for Scientization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im Myung-hyun¹ · Kim Byoung-soo¹ *

¹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Learning can be defined as its objects, main question for the objects, and its unique way to organize all the knowledge acquired as the results of the question. From the point of view like this,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can be defined as learning for human body and its functions, health and diseases based on the theory of the Yin and Yang and of the five elements. Nowadays Many papers based on laboratory work publish for the name of scientization of TKM, but from the viewpoint of definition of learning, they have a problem that there is no basic theory. If TKM could be communicated with western natural science, it has to be solved. And oriental physiology has a same object and same questions with western physiology, so oriental physiology can be useful to make a bridge between TKM and western natural science.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Scientization,

I. 서 론

현대 서양 의학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외 유수의 병원에서도 한방 치료를 새로이 조명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한방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경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임상 논문 및 실험 논문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개중에는 SCI급 논문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학의 과학화라 불리는 이와 같은 흐름은 한의학 논문의

양적 성장을 불러일으키는 데 큰 공헌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이 곧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발전과 동의어인지에 있어서 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명목 아래 발표되는 많은 논문들은 한의학과 서양 자연과학을 동등한 위치에 둔 채로 일대 일의 소통을 꾀하기보다는, 한의학이라는 학문을 실제에 적용한 결과인 한방 치료 기술이나 기타 치료 수단만을 취하여 그에 대해 서양 자연과학의 방식으로 증명을 행한 결과를 보여주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경우가 더 많다. '한방'은 이용하되, '한의학'은 뒷전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학문'으로서의 한의학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화라는 미명 아래 한의학이 그저 새

* Corresponding author :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300-716, Korea
E-mail : kbssoo25@dju.kr · Tel : +82-42-280-2616
투고일 : 2015년02월13일 수정일 : 2015년02월16일
게재일 : 2015년02월16일

로운 치료 기술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매몰되지 않으면서 현대의 대세인 서양 자연과학과의 동등한 소통이 가능하려면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학문의 정의에 비추어 본 한의학

어원학적으로 ‘학문’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후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또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의 기조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학문은 물음에서 시작된다. 사물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의 문제, 사물에 대한 지식의 의미와 원인, 그 결과에 대한 지식을 찾는 것이 학문이다. 나아가 학문은 그 대상의 숨은 원리, 내재적 질서를 드러내어 보편화하고 체계화한다. 학문은 이와 같은 지식의 체계화와 그를 위한 방법론의 고유함에 근거한다. 그것은 문제의식과 방법론의 일관성, 이론의 보편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문은 대상과 실재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측면을 포괄한다. 이해의 관점과 체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지식 체계가 형성되며, 그것이 학문의 성격을 결정한다¹⁾.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학문은 대상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되며, 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얻어진 여러 지식들을 보편화하고 체계화하는 고유한 방법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문으로서의 한의학의 대상은 무엇이며, 또 한의학이 주로 제기하는 물음은 어떤 것인가? 또한 그 물음의 답으로 얻어진 지식들에 대한 한의학의 고유한 체계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의학의 정의에 대하여 元秦喜²⁾는, 한의학을 “인체의 기능과 질병의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건강의 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방법 등이

현대의학과는 상이한 의학으로서 인체를 하나의 작은 우주(小宇宙)로 보고 - 整體觀 - 인체의 기능과 건강, 질병, 치료 따위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의생리학』에서는³⁾ 韓醫學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한의사들에 의해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국가 관리하의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학’이라 하며 ‘한의학’ 이전에 ‘의학’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의학은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몸’은 정신과 육체 그 어느 하나만으로 정의될 수 없고, 또 정신, 육체의 단순한 합도 아니다. 인간의 ‘몸’은 생물학적, 철학적, 문화적, 사회적 함축을 가지며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은 ‘몸’의 모든 함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고 건강과 질병과 관련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인체이며 주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는 인체의 기능과 질병 등은 가장 주된 물음이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상과 그 대상을 향한 물음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체계화하는 한의학만의 고유한 방식은 어떤 것인가? ‘현대의학과는 상이’하며 ‘인체를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한다는 元秦喜의 언급에서는 한의학의 고유한 지식 체계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국의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만든 한의학 개론서인 『한의학총강』⁴⁾에서는 책의 제일 앞부분에 한의학 이론체계에 대한 내용을 배치하여, 한의학 고유의 지식 체계화 방식인 한의학 이론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한의학 전체에 대한 소개에 해당하는 총론 부분을 지나 각

1) 신승환. 학문 이해의 역사와 존재해석학적 학문론. 인간연구 제11호, 2006, pp. 250-282.

2) 원진희. 『東醫寶鑑』의 의학적 가치에 대한 고찰. 藏書閣 제24집, 2010, pp. 39-57.

3)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집문당, 파주, 2008, pp. 10.

4) 나창수 외 18인. 한의학총강. 의성당, 서울, 2013.

론의 제일 앞부분에 천인합일사상과 음양오행학설을 언급하며, 한의학 이론체계가 어떤 사상과 학설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2. 최근의 한의학 연구 경향에 대한 논의

조현영은 1934년 『통속한의학원론』⁵⁾에서 한의학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은 전세계적 경향임을 언급하며 한의학의 독특한 특성을 서양 의학과의 비교를 통하여 드러내 보인 바 있다. 이처럼 동서 의학에 관한 논의와 논쟁은 그 연원이 깊으나, 지금처럼 서양 자연과학의 형식을 빌린 실험 논문이 한의학 연구의 대세가 된 것은 국립 한국한의학연구소(현재의 한국 한의학 연구원)가 설립되고 1997년 ‘한의학발전 연구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⁶⁾ 이 사업을 계기로 한의학계에서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연구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의학계의 연구역시 기존의 문헌 연구 방법에서 실험적 연구 방법으로 대세가 옮겨가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서구에서 일어난 보완대체의학의 붐은 이러한 대세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한의학 연구가 지금과 같은 과학화 연구로 방향을 틀게 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지금과 같은 과학화 연구의 기본 틀은 20세기 초중반에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며 현대에 있을 가치가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들 중 한의학의 치료효과에는 주목했던 이들이 주장한 ‘한의학의 과학화’에서 기인한다. 이들이 주장한 한의학의 과학화는 ‘廢醫存藥’⁷⁾, 즉 ‘의학 이론은 폐하고 (약으로 대표되는) 치료 경험은 보존한다’, 다시 말해서 미신에 가까운 한의학 이론은 배제하고 ‘경험’에 기반한 유효한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그 기전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20세기 끝무렵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괄목할 만한 수준을 이루어 낸 실험논문의 양적 성장

은 이처럼 한의학의 비과학성과 함께 ‘廢醫存藥’을 내세운 이들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학문의 정의에 따라 한의학의 정의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한의학은 인체를 그 대상으로 하여 인체의 기능과 건강 및 질병 등에 대해 음양과 오행 등의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화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만연한 실험 논문 속에서는 그러한 기초 이론들보다는 서양 자연과학적 방법론이 주가 된 것이 사실이며, 인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 탐구의 결과인 치료 방법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마저도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식으로 한의학이 학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 서양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취하는 것만으로 한의학이 서양 자연과학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고 찰

서양 자연과학이 연구에 있어서 대세가 된 지 오래이며, 따라서 한의학 역시 그러한 대세에 발 맞추기를 꾸준히 요구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그러한 요구에 응답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으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문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채로 과학화의 요구에 응하면 한의학과 서양 자연과학 사이의 동등한 소통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등한 소통을 기대하려면 둘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하며, 둘의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려면 한의학이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학문의 정의의 기본적 요소인 학문의 주 대상, 주 질문, 그리고 그 학문만의 고유한 체계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대부분의 실험 논문에서 쉽게 간과하는 한의학 기초 이론이 한의학의 고유한 체계화 방식으로서의 지위와 중요성을 회복해야 함을 또한 추론할

5) 조현영. 통속한의학원론. 학림사, 서울, 1983, pp. 21.

6) 이충열. 현대한의학의 이해-한의학의 정체성 문제 고찰을 위한 예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4(5):758-769.

7) 劉衛東. 20世紀30年代“中醫科學化”思潮論析, 齊魯學刊 203기, pp.35-41, 2008년 제2기.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은 그 학문의 사상적 배경이 동양철학이며 그 발달 배경이 현대 서양 자연 과학의 그것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만큼, 과학화를 위한 학문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인체가 표현하는 생명 현상의 발현기전을 한의학적 관점에서 연구⁸⁾하는 학문인 한방생리학은 동일하게 인체를 대상으로 하며 인체의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양방생리학과 비교했을 때 그 대상과 주제가 같으므로, 한의학이 서양 자연과학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유용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만남이 하위 구조에서가 아닌 상위 구조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바라보는 인체는 동일하므로 분명히 서양의학에서 발견한 사실과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사실이 부합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의학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서양의학과 서양의학에서 밝혀진 내용을 한의학으로 재해석하는 자료들을 찾아서 서로 비교·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 대등한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물론 처음에는 경락학설보다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물질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부학설을 기반으로 서양의학과 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IV. 결 론

한의학 기초 이론을 배제한 채 한방 치료 기술의 효율성 증명이나 한방 치료 기술의 서양 자연과학적 기전 규명에 중심을 두는 현재의 실험 연구 중심의 한의학 연구는 잘못된 것이며 이와 같은 연구로는 한의학과 서양 자연과학 간의 동등한 소통을 꾀하는 것이 어렵다 할 수 있다. 한의학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서양 자연과학과의 동등한 소통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한의학 기초 이론의 내부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기초 이론의 논리의 완결성을 높임과 더불어 서양 자연과학과의 접점을 찾는 데 가장 유리한 한의학의 분야는 한방 생리학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승환, 학문 이해의 역사와 존재해석학적 학문론, 인간연구 제11호, 2006, pp.250-282.
2. 원진희, 『東醫寶鑑』의 의학적 가치에 대한 고찰. 藏書閣 제24집, 2010, pp.39-57.
3. 전국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집문당, 과주, 2008.
4. 나창수 외 18인. 한의학총강. 의성당, 서울, 2013.
5. 조현영. 통속한의학원론. 학림사, 서울, 1983.
6. 이충열, 현대한의학의 이해-한의학의 정체성 문제 고찰을 위한 예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24(5):758-769.
7. 劉衛東. 20世紀30年代“中醫科學化”思潮論析, 齊魯學刊203기, 2008, pp.35-41.

8) 전국 한외과대학 생리학 교수 편저, 동의생리학, 집문당, 과주, 2008, pp. 10.